

# 공생(共生) 관계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닭고기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진 외국에서 개량된 '전용육용계'라는 계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끔씩 어떤 대책사업을 펼칠 때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대부분 동참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기록들과 선배들의 충고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기생(寄生)과도 같은 무임승차자도 많아서 단결력을 저해시키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공생'(共生)이란 용어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생에도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만 이로움을 주는 '편리공생'(片利共生)도 있고, 아예 한쪽에는 해로움을 주는 '기생'(寄生)이 있다. 보편적으로 '공생'(共生)이라 하면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이 세상에는 편리공생이든 기생이든 공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관계가 수 없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육계산업은 계열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러한 공생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개인이 종계입추를 판단하고 병아리를 생산하여 개인의 육계농가에 판매했다. 각자가 알아서 닭을 팔았던 규모가 작은 개인적인 독자 경영의 시대였으니 남과 더불어 보다는 나 자신, 개인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은 개인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형태로 바뀌면서 각자의 개인적 분업역할이 모여 하나가 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요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별 구조 속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업자들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주는 일이 많은데 산업의 구성원들은 좀더 노력하여 이런 문

제를 줄여나갔으면 한다.

계육산업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최종산물인 닭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지를 향해 어려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우리는 서로가 대적해야 할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쓰러지기를 바라는 경쟁 관계도 아닌 누구보다 밀접한 산업유지를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목적지 도달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원종계 회사와 종계장, 종계장과 부화장 및 계열회사, 계열회사와 육계농가, 더 나아가서는 단체인 협회와 협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갈등 양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스스로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살고자 뛰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안심시킨 후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는 그 속에서 삶아져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들은 새삼 명심해야 할 때라 본다. 나만 살고자 발버둥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FTA 협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마당에 우리끼리 반목해봤자 제살 깎는 노릇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산업이 사라지면 종계업도, 부화업도, 육계업도 존속될 수 없고, 소비시장이 없다면 닭고기 생산 역시 무의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업계는 더불어 정신보다는 나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구매자는 무조건 값을 깎아서 원가를 줄이려 하고, 공급자는 깎이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공방의 정도가 지나치려하고 있다.

계육산업은 생산주기가 짧아서 호·불황이 급속하게 교차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의해 소비량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만큼 변수가 많다.

지난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소비축진운동을 통한 도움의 위력을 실감했다. 불황의 늪에서 건져 올려진 이후 우리들은 호황이라는 가마솥에 앉아서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를 감지하지 못해 채 3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장기간 불황의 늪으로 다시 내던져진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나만 살겠다고 용트림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음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모두가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육산업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어떤 존재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존재든지 없어서는 산업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무자년(戊子年)을 맞이하여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인정하고 보호하여 건전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